



즉시 배포용: 2019년 4월 1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 CUOMO 주지사, 2주년을 맞은 연례 흑인 산모 보건의 주(BLACK MATERNAL HEALTH WEEK) 인정

*제정된 회계로 산모 사망률 및 인종 간의 격차에 대처하기 위해 800만 달러 투자*

**2019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을 흑인 산모 보건의 주(Black Maternal Health Week)로 선언하는 [선언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을 흑인 산모 보건의 주(Black Maternal Health Week)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정된 2019-20 회계연도 예산(Enacted 2019-20 Budget)에는 산모 사망률 및 인종 간 격차 결과에 관한 뉴욕주 태스크포스(New York State Taskforce on Maternal Mortality and Disparate Racial Outcomes)가 지난해에 권장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금 8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흑인 산모 보건의 주(Black Maternal Health Week)는 흑인 산모의 건강, 권리, 정의 등을 지지하는 흑인 여성 주도의 부문간 동맹인 블랙 마마스 매터 얼라이언스(Black Mamas Matter Alliance)가 창안한 프로젝트입니다. 흑인 산모 보건의 주(Black Maternal Health Week)는 흑인 산모 보건 정책, 연구, 생식 및 출산 정의 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 산모 보건의 주(Black Maternal Health Week)는 산모 사망률의 근본적인 원인과 뉴욕의 주민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인종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처하는 뉴욕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강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의 주와 하나의 공동체로서, 뉴욕은 이 사회적인 부당함을 해결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도출하는 성공적인 구성 요소를 구현하려는 활동 측면에서 미국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에도 우리는 흑인 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 간의 불평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산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여성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창의적인 해결책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폭넓은 인종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부당함과 싸우고, 산모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은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백인 여성보다 3 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 산모 보건 주간(Black Maternal Health Week)와 같은 행사가 이 위기 상황을 드러내고 대중을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뉴욕주 상원의 다수당은 산모 사망률 및 인종 간 격차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주정부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Cuomo 주지사님 및 주의회 동료 의원님들과 협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 다수당은 뉴욕의 임산부, 특히 유색 인종 여성을 위한 보건 결과에 존재하는 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올해 초 우리는 산모 사망률의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산모 사망률 검토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모든 임산부와 산모를 공평하게 보살피기 위해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4월에 주지사는 산모 사망률을 낮추고 인종 간 격차에 따른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기타 프로젝트를 여러 건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의회가 기금을 지원하기로 동의한 태스크포스 권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인에 대한 접근성 확대:** Howard Zucker 커미셔너의 리더십에 따라, 2018년에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산모 사망률에 관한 청취회를 7 차례 실시했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인(Community Health Workers, CHW)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지역사회들의 공통된 요구 사항이 증가했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인(CHW)은 사회적 지원, 정보, 옹호,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산모 유아 지역사회 보건 협동조합(Maternal Infant Community Health Collaboratives, MICHCs)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인(CHW)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예산으로 260만 달러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인(CHW)의 현재 활동 범위 외에도, 참여자는 추가적인 봉사 기회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포함하여 산모 사망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했습니다.

**암묵적인 인종적 편견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배치:** 여성 보건에 대한 인종적인 격차는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인종적 편견 양쪽 모두에 대처하지 않으면 개선될 수 없습니다. 치료 결정 및 결과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암묵적인 인종 편견은 인종적으로 다양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에는 건강 보험 제공기관 및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암묵적인 편견과 인종 차별이 환자의 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커리큘럼이 포함됩니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전후 사망률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설립:** 뉴욕주는 시기 적절하게 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병원에 출산 전후의 주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웨어 하우스는 산모 사망률 결과를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된 캘리포니아 산모를 위한 양질의 치료 협동조합(California Maternal Quality Care Collaborative)을 모델로 합니다.

**산후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전문가 실무 그룹 소집:** 건강 보험 시스템은 현재 양질의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장려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후 조리 기간 동안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 보건부(NYSDOH)는 미국 대학교 산부인과 전문의 협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COG) 및 미국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와 협력하여 전문가 실무 그룹을 소집할 예정입니다. 제공기관, 납부자, 주정부 기관, 환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은 환자 중심의 개별화된 치료를 촉진하고 산모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산후 조리를 한 번의 만남이 아닌 진행중인 과정으로 다시 고려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산모를 보살피고 출산전 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는 대략 같은 시기에 마감이 되는 임신부 소그룹을 모으는 프로그램인 센터링 프로그래너시 파일럿(Centering Pregnancy pilot)을 개시했습니다. 매 방문 때마다 임상의는 예비 엄마들이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질문을 할 수 있는 대화식 그룹 만남으로 보낸 시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각 여성을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검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에 처음 발표된 최초 1,000일 간의 메디케이드 재설계 프로그램(First 1,000 Days Medicaid Redesign Initiative)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진행 중인 주정부 활동과 결합된 이 프로그램들은 산모 사망률을 줄이고 결과로 나타난 인종 간 격차를 개선하는 데 있어 리더로서 뉴욕을 선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건부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모 사망률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은 임신 또는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백인 여성보다 3 배 정도 높습니다. 뉴욕주는 인종 간 격차와 편견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산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주요 지역사회에 이해 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보건 위원회(Senate Health Committee) 위원장인 **Gustavo Rive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흑인 산모가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출산 중 사망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에 시달리는 것은 정말로 끔직한 현실입니다. 흑인 산모 보건 주(Black Maternal Health Week)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흑인 여성들의 사망률을 높아진 원인이 되는 의료 격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공약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와 뉴욕시에 산모 사망률 검토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Board)를 곧 수립하는 일을 포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이러한 산모 사망 결과에 계속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뉴욕주 하원 보건 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 위원장인 **Richard N. Gottfried**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산모 사망률은 평균적인 상황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명백한 수준의 인종 간 격차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산모 건강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 확대, 의료기관 교육 개선,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등이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흑인, 푸에르토리칸, 히스패닉, 아시안 간부회의(Black, Puerto Rican, Hispanic and Asian Legislative Caucus) 의장인 **Tremaine W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 산모 보건 주(Black Maternal Health Week)는 흑인 여성 및 유아들을 위한 건강 결과를 향상시키는 우리 업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모 사망률이 전국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여기 뉴욕주에서 우리는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옹호, 가정 방문 등을 제공하는 지역 단체들을 보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원하고, 보다 큰 성공을 위해 태스크포스 권고안을 재정 지원합니다."

**Latoya Joyne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 여성을 위한 산모 건강 보험에 대한 이 역사적인 투자는 너무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비판적 대응 조치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흑인 여성이 매일 직면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Cuomo** 주지사님 및 행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